

우리가족한마당 **미완성,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큰**

관악 난기

미완성은 부족함을 뜻하지만 그래서 더 큰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관악 지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특유의 천목을 바탕으로 다가올 내일의 발전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지회

서울은 한복판을 가로 지르는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과 강북으로 나뉜다. 이중 서울 남쪽 지역의 일부분인 곳이 행정 구역상 관악구이다. 이 관악구는 관악산을 끼고 있어 안양시와 서울의 경계가 되기도 한다.

이외에 관악구는 지역적으로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지금의 우리는 대부분 그 옛날보다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판자집 등 과거 우리의 어려웠던 삶을 기억해 낼 수 있는 곳이며, 부푼 꿈을 안고 상경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 오늘이 있게 된 토대이기 때문이다.

그런 관악구는 현재 과거의 모습을 하나 둘 벗고 새롭게 재단장을 하고 있으며 또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을 대표하는 서울대학교를 자랑스럽게 가슴에 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1981년 독립해 어려움 딛고 일어서

관악 재과인의 집결체인 관악지회(지회장 김영택)가 탄생한 것은 1982년으로 올해로서 15년을 맞는다. 그러나 관악지회는 타 조직이 친목 모임에서 창립 형태로 자체 탄생한 것과는 다른 역사를 갖고 있다. 1981년 행정 개편에 따라 영등포구가 분리되면서 관악구가 탄생함에 따라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악구 내의 업주 23명은 지회 창립을 준비하던 중 69개 업소 가운데 56개 업소가 이에 호응함에 따라 1982년 4월 3일 이정운 회장, 백남석 부회장 등을 임원진으로 한 역사적인 지회 창립을 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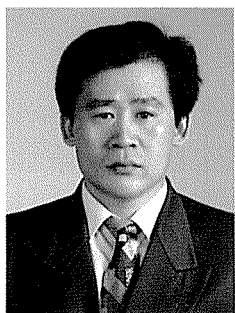
따라서 영등포구에서 분리돼 적은 회원으로 출발한 관악지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

었다. 자체 사무실은 엄두도 못내고 책상만 하나 갖춘 채 아무 것도 없던 시절 임원들의 주머니를 터는 등 헌신적인 노력으로 어려운 운영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관악지회는 집행부의 헌신적인 봉사 와 회원들의 노력으로 창립 10년 만인 92년 꿈에 그리던 지금의 사무실을 갖추는 등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관악지회는 김영택 지회장을 비롯해



김영택 지회장



이귀영 부지회장



방성열 고문



임순철 이사



박상락 이사



오세션 이사

13명의 임원진으로 구성돼 있다. 또 임원진 중 겸임 형식으로 관악지역을 봉천A, B, 서울대, 신대방, 당곡, 난곡 등 6개로 분할해 관할하는 구역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구역장 제도를 통해 관악지회는 협회의 주요 전달 사항을 전달하고 반대로 회원의 애로 사항 등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담당해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은 지역별로 결성돼 있는 모임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관악지회 지역 모임은 친목이 두텁고 운영이 원활한 것이 특징이다. 이런 지역 모임이 한달에 한번 열려 신제품, 경영,

통에 맞닿아 있다. 실제로 관악지회는 9년 전만 하더라도 축구팀이 있어 1주일에 한번 경기를 가질 정도로 친목을 다져온 전통이 있다. 이때부터 다져온 친목의 힘은 오늘에 이어져 현재는 8년전부터 6개 구역이 1년에 한번 각 팀끼리 경기를 가지는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런 친목을 바탕으로 관악지회는 봉사 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지역 내 상록수학원과 동명학원이라는 시립보육원을 대상으로 각 회원이 자신의 제품을 수거해 분기마다 전달하고 있다. 또 이에 그치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업소 아직은 미완성 그래서 가능성 커

현재 140여 관악지회 회원 업소들이 모여 있는 관악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개발면에서 뒤져 있다. 어느 지역이나 있는 백화점 하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한다. 상권 자체도 미약해 대부분의 고객들이 타 지역에서 큰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작은 비용을 이곳에서 지출하며 소비 수준도 낮은 편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현실은 관악지회 업소의 어려움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낮은 소비자의 수준을 타하며 현상을 유지하는 것보다 업소 스스로 노력해 고객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행히 관악지회 업소들은 이런 점을 파악하고 발전을 위한 노력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외적으로도 재개발이 왕성하게 진행되는 등 여건 또한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5~10년 후에는 관악 지역도 외적으로 크게 변모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증만돼 있다.

이에 따라 관악 지회에서 내일의 발전에 대비한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던 체육행사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등산 모임 구성 등 큰 강점이었던 인화와 친목다지기에도 더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관악구는 타 지역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여건으로 미완성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또 이런 외적 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관악지회 업소 자체도 완성 그 자체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관악지회 업소의 노력이 결코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해서임은 아니었으며 열악한 환경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친목과 단결을 유지하고 있는 관악지회 업소들의 역량에 외적 여건의 개선만 따라 준다면 발전 가능성은 어느 곳보다 크다. 아직은 미완성인 곳, 그러나 이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관악지회라 할 수 있다.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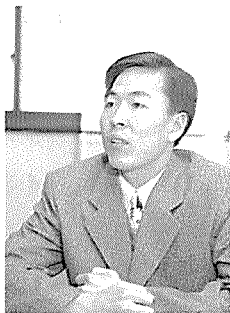
(글/박종선)



김상천 이사



조용석 이사



김경택 이사



박용환 이사



최석용 이사



손용진 감사

가격문제 등 서로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정보센터 구실을 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모임이 활성화돼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탄탄한 지역 모임과 활발한 활동 전개

사실 관악지회 제과 업소들은 지역적 특성으로 80% 이상이 영세 업소이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은 서로 뭉치는 힘을 강하게 한다는 논리처럼 열악한 환경과 이를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마음이 어우러져 끈끈한 친목과 단결의 힘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이외에도 지역 모임의 활성화에는 이를 있게 한 계기가 오래전부터 있어 온 전

지 않고 이중 한 보육기관에는 제조 시설을 갖추어 놓고 1달에 2회 정도 방문해 직접 제품을 만들어주고 있다.

올해로 15차 정기총회를 앞둔 관악지회의 회원 업소는 140여 군데 정도이다. 그리고 이들 업소들은 봉천사거리, 신림사거리 등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제과점의 경쟁이 치열한 편이며 이중 20여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영세한 편이다. 그러나 이들의 회원 가입률이 100%에 가깝다는 것은 관악지회 구성원의 친목과 단결력이 어느 정도인가 짐작케